

金 “당정조화로 국정 에너지”…安 “수도권 탈환해 170석”

국힘 당권 후보 첫 정견발표회

윤상현 “빨셈정치, 덧셈정치로”

조경태 “정당 보조금 폐지 하겠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 6인은 7일 첫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의 비전과 공약을 내세우며 당심(黨心)에 호소했다.

이날 오전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을 듣고 당심을 듣는 살아 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를 겨냥,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수도권을 탈환해서 170석(으로) 총선 압승하겠다”며 “(야당보다 득표율이) 15%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권) 지역구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확장력이 있는 당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숫자”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김 후보를 겨냥해 “정년 지지율, 중도 지지율, 수도권 지지율에서 제 경쟁자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저는 3번에 걸쳐서 서울·경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자신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민

주당을 꺾멸하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을 이루겠다”며 “당일 동지 여러분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거지만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달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후보는 “고질적 병폐인 빨셈정치의 DNA를 반드시 덧셈정치의 DNA로 바꿔야 한다. ‘미스터 플러스’ 윤상현이 국민의힘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다”며 여의도연구원 전면 개편·24시간 신고센터 설치·당원소환제 도입·수도권 대약진 등을 약속했다.

조경태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불체포특권·정당 국고보조금, 이 3폐(廢)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경태가 앞장서겠다”며 “여러분께서 조경태를 키워주신다면 한국의 링컨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전하람 후보는 “단순히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제2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보수의 가치가 분명한 정통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 지도부 및 여의도연구원장 등 당원 투표 선출·당내 특별민생위원회 설치·10만 인재 양성 등을 내세웠다. 이날 발표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 6명과 비롯해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 각각 13명·1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용 해 ‘컷오프’로 불리는 예비경선을 치르고 10일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출경선 최종 진출자를 발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정부에 민간 인사 시스템,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은 경제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혁신을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

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해상의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다섯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하라”며 “아울러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와 9월에도 세종에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하람 “대통령 당비 만큼만 영향력 행사 할 건가”

“충성 경쟁 하는 사람들이 간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전하람 후보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두고 “(특별당비를 내는) 그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하시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비전발표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많은 당비를 내는 만큼, 당무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당원들이 보통 한 달에 1000원 정도, 많으면 5000원, 1만원씩 낸다. 그렇다면 300만원 나누기 1000원 해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원씩, 1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한 달에 30만원씩 내는 국회의원보다 10배 더 내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아울러 전 후보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당의 분란을 예방하고 공천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이라며 “과거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거나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을 때 항

상 수렁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께 충성 경쟁하고 무조건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분들이 과연 본인의 공천이 위협받을 때도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전 후보는 앞서 KBS 라디오에 나와서는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른다고 충성 경쟁을 반복해 대통령을 점점 작게 만드는 사람들은 결코 충신이 아니고 굶이 말한다면 간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 초선 의원을 연판장 돌리고 조금만 뒤하면 배제하고, 대통령을 본인이 독점하려는 간신배적 행태가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 출발할 때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친박(친박근혜)의 대통령이 됐다가 진박(진실한 친박)의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줄여서 문고리의 대통령까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나 ‘간신배’ 등의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구에는 “당 대표 후보들이 어리에는 아니다”며 “용어 선택이나 메시지가 당원들의 마음과 생각에 부합하는지는 당원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3대 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관리 TF 구성

대통령실은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점추진할 2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점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종 국무회의에서는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됐다.

20개 중점과제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의 4개 키워드에 따라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을 비롯한 5개 과제는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협업 과제’로 분류됐다.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정부개혁이 선정됐다. 3대 개혁과 함께 거론됐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의 세부 과제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경제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업해양수산업의 수출·미래 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정됐다.

사회 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문화·관광의 전략산업 육성이,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 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중점 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